

# 라오디게아 - 넘버원

이사야의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멸망의 예언

Jeff Pippenger

2023-08-14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제 네게 무슨 일이 있기에 네가 다 지붕 위로 올라갔느냐? 소란으로 가득한 너여, 떠들썩한 성읍이여, 즐거운 성읍이여! 네 죽임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네 모든 관원들이 함께 도망하였고, 활쏘는 자들에게 결박되었으며, 네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다 함께 결박되었으니, 멀리 도망하였던 자들까지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되, 나를 외면하라. 내가 심히 통곡하리니,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 애쓰지 말라. 이는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니, 성벽이 무너지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날이라. 이사야 22:1-5.

이사야서에서는 "burden"라는 단어가 열여덟 번 나온다. 그 가운데 열한 번은 직접적으로 파멸의 예언을 지칭하고, 나머지 일곱 번은 어깨에 짊어지는 짐을 가리킨다.

"burden"으로 번역된 용례 가운데 단 한 번만이 어깨에 지는 어떤 것을 가리킴과 동시에 파멸의 예언이기도 하다. 나는 어깨에 지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이면서 동시에 파멸의 예언이기도 한 그 단 한 번의 용례를 다루려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구분을 밝혀 두지만, 이러한 사실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할 것이다.

그 장은 '환상의 골짜기'의 정의에 관해 모호하지 않다. 그것이 '다윗성'이자 또한 '예루살렘'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상의 골짜기는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여섯 절의 역사 동안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을 가리킨다. 이사야는 앗수르 왕이 타르탄이라는 군 사령관을 보내 애굽의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게 하고 그 왕이 점차적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는 과정을 묘사한 20장의 역사로 이 멸망의 문맥을 설정하였다.

일요일 법령은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확인되며, 그 구절은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세 집단을 지목한다.

타르탄이 아스돗에 왔던 해에(아시리아의 왕 사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는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빼앗았다. 그와 동시에 주께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허리에서 자루옷을 풀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벌거벗은 채 맨발로 걸었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징과 징조로서 세 해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걸은 것 같이, 아시리아의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포로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사로잡혀 가는 자로, 노소를 막론하고, 벌거벗기고 맨발로, 심지어 엉덩이까지 드러나게 하여 이집트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이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이던 이집트를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섬의 주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구하며 달아나 의지하던 우리의 기대가 이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피하랴?" 하리라. 이사야 20:1-6.

그 섬의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은 다니엘서 11장에서 북방의 왕으로도 묘사되는 앗시리아의 왕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냐는 것이다.

그는 [북쪽의 왕]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리라. 그러나 그의 손에서 벗어날 자들이 있으니,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으뜸 되는 자다. 다니엘 11:41.

이 구절에서는 미국의 일요일법이 지목되며, 다니엘서의 해당 대목에는 고려할 만한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 연속된 세 구절이 모두 '나라들'을 가리킨다. 40절에서는 옛 소련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1989년에 교황청과 미국에 의해 휩쓸렸다. 현대 역사학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42절에서는 북방의 왕(교황권)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정복할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countries"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 그것이 미묘한 차이들 가운데 하나다. 내가 이 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미묘한 차이 중 다른 하나는 41절과 다시 42절에 나오는 "escape"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둘 다 "escape"로 번역되지만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다. 42절에서 "escape"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원을 찾지 못함을 의미한다. 유엔을 대표하는 "열 왕"이 자신들의 세계 단일 정부를 교황권의 짐승의 통제 아래 넘기기로 합의할 때, 탈출도 없고 구출도 없다.

네가 본 열 뿔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열 왕들이나,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한 뜻을 품고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짐승에게 넘겨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양과 싸울 것이나 어린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라. 또 네가 짐승 위에서 본 그 열 뿔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별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두사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넘겨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12-17.

이 '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열 지파의 수장이었고 이세벨과 결혼했다. 이세벨은 세상 마지막 때의 교황권이고,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자들이며, 아합은 열 왕의 동맹의 수장이다. 아합은 일요일 법령의 예언적 역사 동안 유엔의 지도자로서의 미국을 대표한다. 앗수르, 곧 다니엘 11장 42절의 북방의 왕이 애굽을 정복할 때, 그는 열 왕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교황권에 넘기기로 동의하도록 막 강요한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위기에 다가갈수록, 주님의 도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한 머리—곧 교황권—아래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맞서기 위해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대배도자에 의해 굳게 결속된다. 그는 진리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자신의 대리자들을 하나로 묶으려 하는 동안,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려고 일할 것이다.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그는 질투와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을 부추긴다." Testimonies, 7권, 182쪽.

41절에서 우리는 'escape'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42절에서도 'escape'라는 단어를 발견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다. 41절에서 'escape'로 번역된 단어는 마치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사야 20장 6절에서도 'escape'로 번역된 단어다. '그 날에' '이 섬의 거민'은 '그 날에' 다니엘서 11장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보여지듯이 점차 세상을 정복해 가는 앗수르 사람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교황권, 곧 다니엘의 표현으로는 북방의 왕,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앗수르인인 그가 미국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땅"을 정복할 때, 두 집단이 식별된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리라.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으뜸 되는 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니엘 11:41.

하나는 엎드려진 '많은 자들'이고, 다른 한 무리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으뜸 되는 자들'로 나타난다. 일요일법령 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아직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부른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4.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자들로서, 이사야 20장의 섬의 백성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41절의 또 다른 뉘앙스는 40절, 41절, 42절에서 "countries"라는 단어를 보게 되지만, 41절에서는 그것이 보충된 단어로서 다니엘의 원문에는 없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련 붕괴 때 40절의 성취로 많은 나라들이 전복되었고, 교황권이 유엔을 장악할 때도 많은 나라들이 정복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전복되는 "many"는 많은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뿐이다.

만일 진리의 빛이 당신에게 비추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드러내고, 일요일 준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보여 주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날'이라 부르시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거부하고 거짓 안식일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이 평범한 노동일이 아니라는 근거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요일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는 칙령에 순종할 때,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는 데 동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거절하는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7년 7월 13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모든 교인은 처음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될 때 안식일 교리를 받아들였으며, 안식일에 관한 "진리의 빛"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 또는 표지이다. 제4계명의 요구를 이해하고도 참된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것을 명한 유일한 권세에 경배를 드리는 셈이 된다. 짐승의 표는 교황권의 안식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대신으로 세상이 받아들인 것이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시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은 빛을 받고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달을 때까지 누구도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된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거짓과 참된 것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범죄를 계속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이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 개신교 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이에 반대하다가 가장 혹독한 박해를 견뎌냈던 그 거짓 종교를 지지하기 위해 세속 권력과 연합할 때, 교황권의 안식일이 교회와 국가가 연합한 권위로 강제로 시행될 것이다. 국가적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오직 국가적 파멸로만 끝날 것이다. 원고 51, 1899년.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셋째 천사의 빛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들은 오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뿐이다. 이는 그때에야 비로소 재림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시험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 때에 무너지는 "많은 이들"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인들이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0:16.

이사야는 교황권의 점진적인 세계 정복과 관련하여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주어진 '표적과 기사'이다. 이집트는 유엔을, 에티오피아는 미국을, 앗수르는 교황권을 가리킨다. 그러한 예언적 역사의 맥락에서 이사야는 일련의 파멸의 예언들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22장은 일요일 법령 때 무너지는 라오디게아인들과, 바벨론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를 불러내는 빌라델비아인들에 관한 것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품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일요일법 때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심을 당한다. 나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오직 다음 요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22장은 라오디게아가 멸망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는 재앙의 예언이 "환상"의 골짜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서 "환상"으로 번역되는 주요 단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예언적 사건의 연속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나타낸다. 하나는 교회 외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의 것이다. 22장에서의 단어는 예언적 사건을 나타내는 그 "환상"이며, 잠언에서 "환상"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은 멸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는 세상 끝에 하나님의 교회 안의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식별하는 예언이다. 셉나로 대표되는 한 부류는 라오디게아이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대표되는 다른 부류는 빌라델비아이다. 물론 이 장에서 두 부류 사이의 구분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구분과 동일하다. 한 부류는 한밤중에 기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류는 그렇지 않다. 상징으로서의 "기름"은 그것이 나타나는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진리를 나타내지만, 이사야 22장에서 열 처녀의 "기름"은 "환상"이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한 부류는 "기름"이 있고 다른 부류는 없다.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은, 한때 사탄에게 주어졌던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해 주께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통을 유지하신다. 그 금빛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며, 그 등불이 깜박이거나 꺼지지 않게 한다. 만일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 가운데 이 거룩한 기름이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욕됨을 당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시려는 금 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하는 부르심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자기들의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는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고, 그들의 생애는 난파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널리 부어질 것이다. 금으로 된 관들을 통해 금 기름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의의 해의 찬란한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선지자들의 영은 서로 일치하며, 스가랴서의 두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기도 하다.

두 증인에 관하여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였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11:4; 시편 119:105.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대표한다.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다. 둘 다 또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다. 구약의 예표와 제사와 예언은 장차 오실 구주를 가리킨다.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들은 예표와 예언으로 미리 예고된 그대로 오신 구주에 대해 말한다." 대쟁투, 267.

스가랴서의 두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소통 과정을 나타낸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환상'인 '기름'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전달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은 문맥상 모세와 엘리야로 지목된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자체로 상징이다.

변화산이나 요한계시록 11장에서처럼 그들이 함께 나타날 때, 그것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진리를 상징한다. 변화산에서는 그것들이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의 순교자들과 14만 4천을 대표하는 반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 그러나 재림주의에서는 그것들이 더 많은 것을 대표한다. 유대인들에게 두 증인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었지만, 재림주의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이다. 그래서 요한은 밧모 섬에 있었다.

또한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계시록 1:9.

이사야 22장에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증인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사실은 그 장에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를 적용해야만 알아볼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적 사건들의 "환상"을 설명하기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라.

"성경 역사의 바로 그 알파인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 설명하셨다." 시대의 소망, 796쪽.

엘리야는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에 기초한 기별을 가지고, 아버지들(알파)의 마음을 자녀들(오메가)에게로 돌리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선지자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 예언의 알파와 오메가를 대표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세는 윌리엄 밀러였다. 모세와 밀러는 모두 죽었고, 둘 다 영감에 의해 구원받은 자로 인정되었다. 모세는 물론 죽은 직후 부활했지만, 밀러의 부활 때까지는 천사들이 그의 무덤을 둘러싸고 기다리고 있다. 엘리야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오게 될 마지막 사자를 대표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지의 선포를 막으려 했으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말라기 4:5).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군가가 올 것이며,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너는 지나치게 열심이야,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네 메시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내가 알려 주겠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대로 진리를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흠을 찾고 분쟁의 영을 품는다면,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요한복음 16:12). 그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깨달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그치라. 그가 무엇으로 헤아림을 받겠느냐?"(이사야 2:22). 여러분은 연약한 영혼을 예수님께 매달아야 합니다. 산에 샘이 있는데 골짜기의 샘에서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낮은 시냇물은 떠나고, 더 높은 샘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진리의 어떤 점이 있다면, 탐구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광산에 진리의 갱도를 깊이 파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선입견을 버리며, 하늘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선택된 기별, 1권, 412쪽.

이사야서 22장에서 셉나와 엘리야김은 북방의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는 세상 마지막 때 재림주의 내의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대표한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셉나는 그렇지 않았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은 멸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이 구절의 '환상', 즉 예언적 메시지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예언적 빛의 증가를 이해하면 살고, 이해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요일 법령의 시험에서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법령에서 무너질 때 '진리의 환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율법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으며, 은혜의 기간이 닫히기 직전에 봉인이 풀려 증가하는 지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재물이 늘어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도, 네가 스스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17.

이사야의 표적은 그가 삼 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걸어다닌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예언적 메시지로 경고를 받을 이들에게, 예언적 사건들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요일법에 이르게 되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끌려가는 포로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사야는 그의 시대에 표적과 이적이었지만, 세상 끝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로 된 것이요, 또한 세상의 끝이 임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22장 첫 다섯 절에서 예루살렘, 곧 다윗의 성은 "소동"으로 가득한 "소란스러운", "즐거운 도시"로 묘사된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사용하는 성경의 고전적 문구가 이 장에서 그 "소동"으로 가득한 "즐거운" "소란스러운" 도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데, 13절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라고 말할 때다. 그러나 그들이 즐거워할지라도, 그들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은 칼에 의한 것도 아니요 전쟁 중의 것도 아니므로, 이사야는 "너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다.

그들이 무엇에 시달리든 간에, 그로 인해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 위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상징이며, 강신술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본문에서 재림주의는 영적 미혹에 빠져 있다.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만상을 숭배하는 자들; 주를 경배하며 주를 가리켜 맹세하고 말감을 가리켜서도 맹세하는 자들; 주에게서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 아니하며 그에게 묻지 아니한 자들.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주께서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손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주의 제물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의 자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에 또한 문지방을 뛰어넘으며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으로 채우는 모든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스바냐 1:5-9.

일요일 법령 위기 때,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재림주의는 '환상의 골짜기'에 있다. '기름' 또는 '환상'으로 상징되는 예언적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은 심령주의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다룬다. 거기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셉나)도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어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에 기뻐한 모든 자들이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11, 12.

물론 바울이 사용하는 '진리'라는 단어는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내는 세 개의 히브리 문자를 결합해 만들어진 히브리어 '진리'에서 유래한 그리스어 단어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로 표현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라오디게아인들에게 강한 미혹을 가져오며, 그 미혹은 심령주의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접신한 자들과 지저귀며 중얼거리는 술사들에게 물어 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 가운데 빛이 없음이라.' 이사야 8:19, 20. 만일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성경에 너무도 분명히 진술된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면, 강신술의 주장과 현상들 속에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일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육적인 마음에 그렇게도 맞는 방종을 포기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죄를 버리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은 빛에 눈을 감고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장 나아가고, 그동안 사탄은 그들을 에워싸 올라가미를 짜서 그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10, 11." 대쟁투, 559.

이사야 22장에서는 즐거운 성읍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전쟁이나 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데 묶여 도망한 지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교회가 세상과 유사한 길을 따른다면,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빛을 받았으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다른 모든 백성보다 앞서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품성은 그러한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의인들은 하늘의 곁간에 들여지도록 귀한 곡식처럼 단으로 묶이고, 악인들은 가라지처럼 마지막 큰 날의 불을 위해 거두어지게 될 그 날이 이제 우리에게 임박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 증언, 제5권, 100.

이사야 22장의 지도부는 '궁수들'에 의해 함께 묶여 있다. 썩나는 집을 맡은 지도자로 지목되었고, 그의 직분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사야 22장에서 예언적 사건들의 '환상'으로 제시된 예언의 메시지는 북방 왕이 다가옴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두 부류의 예배자를 형성했다. 한 부류는 하늘의 곁간에 들이기 위해 묶이고, 다른 부류는 말세의 불을 위해 묶이고 있다. 악인들을 묶어 온 것은 '궁수들'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슬람을 가리키는 많은 상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활 쏘는 자들, 곧 계달 자손의 용사들의 남은 수가 감하여지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사야 21:17.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세대에 따른 것이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웃이며, 그 밖에는 계달, 아드브엘, 밍삼, 미스마, 두마, 맛사, 하다르, 데마, 여둘, 나피스, 계데마이다. 이들이 곧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며, 그들의 성읍들과 요새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다. 그들의 민족대로 열두 족장이다. 창세기 25:13-16.

재림교 지도부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이 성경 예언의 성취로서 미국을 공격했다는 기별을 거절했을 때 궁수들에게 포박되었다. 9/11의 공격은 1989년 소련 붕괴 때 봉인이 풀린 그 기별의 확증이었다. 9/11에서의 이슬람의 공격은 1840년 8월 11일과 상응했는데, 그날 이슬람이 제지된다는 예언이 하루가 1년을 상징한다는 밀러의 주된 예언 규칙을 확증함으로써 첫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 주었다. 1840년 8월 11일은 일-년 원칙에 근거해 예언된 사건의 성취였다.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 세계 모든 선교지로 전파되었다.

9/11은 재림주의가 선포하도록 주어진 '환상'의 주된 규칙을 확인해 주었다. 그 규칙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1840년 8월 11일에 일일일년 원칙이 확증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와 밀러의 '심판의 시간' 기별이 권능을 받았음을 표징했으며, 이로써 9/11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온 때를 예표하였다.

"어떻게 해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릴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그곳에서 층층이 올라가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일어나 땅을 심히 흔드실 때 얼마나 무서운 광경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 위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무엇이 닥칠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뒤집히고 또 뒤엎어져 무너질 것이라는 것만은 안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나는 세상에 파괴가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의 강하신 능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광경들이 벌어질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6년 7월 5일.

물론 이슬람에 관해 더 말할 것이 훨씬 많지만, 썩나는 역사의 반복에 근거하고 그 반복의 근본 진리—어떤 것의 시작이 그 끝을 보여 준다는 것—이 수반되는 예언적 역사에 대한 "비전"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1840년 8월 11일에 이슬람이 억제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내려왔고, 9/11에 이슬람이 풀려났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왔다.

나는 이르되,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방백들아, 청하노니 들으라.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나?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서 피부를 벗기고, 뼈에서 살을 떼어내는 자들이다. 너희는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피부를 벗기며, 그 뼈를 부수고, 솥에 넣고 고기처럼, 가마솥 속의 살처럼 토막내는 자들이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때에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음이라. 내 백성을 그르치게 하고, 이로 물어뜯으며 "평강"이라 외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자기들의 입에 넣어 주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되어 환상을 보지 못하며, 너희에게 어둠이 되어 점치지 못하리라. 해가 선지자들 위에 지고, 그들 위에 낮이 캄캄하리라. 그때에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점치는 자들이 당황하리니, 참으로 그들 모두가 입술을 가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권능과 공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허물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선포하노라.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방백들아, 공의를 미워하고 모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이것을 들으라.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의로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그 제사장들은 샅을 받고 가르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3:1-11.

아리엘[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의 무리, 곧 그를 치고 그의 성곽을 치며 그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은 밤의 환상 같은 꿈과 같을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꿈에, 보라, 먹는다고 하나 깨어나면 그의 속은 비어 있고, 또 목마른 사람이 꿈에, 보라, 마신다고 하나 깨어나 보면, 보라, 기력이 없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갈급한 것과 같으니, 시온 산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멈추고 놀라라; 외치며 또 외쳐라.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취하였고, 독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비틀거린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의 영을 부어 너희 눈을 감기셨고, 예언자들과 너희 지도자들,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과 같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배운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읽을 수 없나니, 그것이 봉해졌음이라' 하고, 또 그 책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바가 되었으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리니, 참으로 놀라운 일, 곧 기이한 일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슬기로운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주에게서 그들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 하며, 어둠 속에서 그들의 일을 행하고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참으로 너희의 뒤바꿈이 토기장의 진흙처럼 여김을 받으리라.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겠느냐? 빛어진 것이 자기를 빛은 이에게 '그는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이사야 29:7-16.

이사야에 따르면 환상의 골짜기는 "환난의 날이요, 짓밟힘의 날이요,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혼란의 날이며, 성벽이 무너지고 산들에게 부르짖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예수가 그러했듯이 심히 통곡한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난을 예견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분 앞에는 갯세마네가 있었고, 거기서 머지않아 큰 어둠의 공포가 그분을 뒤덮을 것이었다.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들이 수세기 동안 인도되어 들어가던 양문도 눈앞에 보였다. 세상 죄를 위한 희생을 향해 모든 제물이 가리켜 왔던 그 위대한 실체이신 그분을 위해, 이 문은 곧 열리려 하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그분의 임박한 고통의 현상이 될 갈보리도 있었다. 그러나 구속주께서 눈물 흘리시고 영혼의 비통함으로 신음하신 것은, 이러한 잔혹한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기 고통에 대한 생각이 그 고귀하고 희생적인 영혼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은 것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며, 그분의 능하신 기적들로도 설득되지 않고, 이제 그분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던 그 예루살렘이었다. 그분은 구속주를 거절한 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오직 그 상처를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를 보셨다. 그분은 그녀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찌

그녀를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은 은총을 입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그것은 '그 위치가 아름다워 온 땅의 기쁨'이었다. 시편 48:2. 그곳에는 아버지가 외아들을 대하듯 그리스도께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푸신 보호와 자애로운 사랑의 기록이 있었다. 그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준엄한 경고를 선포했다. 그곳에서는 타오르는 향로가 흔들렸고, 예배자들의 기도와 뒤섞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께서 속죄소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했으며, 상징과 의식의 장엄함이 오랜 세월 이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끝을 맞아야 했다.

예수께서 손을 드시니, 그 손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그토록 자주 축복하신 손이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둔 그 성을 향해 손을 저으시며, 슬픔에 겨워 끊어지는 음성으로 외치셨다. '너라도, 적어도 오늘 이 날에, 네 평안을 이루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여기서 구주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도움, 곧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선물을 예루살렘이 받아들였다면 그 도시가 어떠했을지를 말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이 마땅히 알 수 있었던 것을 알았고, 하늘이 그 성에 보내신 빛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번영의 궁지 가운데 우뚝 서서 나라들의 여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그 성벽 위에는 로마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구속주를 받아들였다면 예루살렘에 임했을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펼쳐졌다. 그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중한 병고에서 치유를 받고, 속박에서 해방되며, 땅의 위대한 도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보셨다. 그 성벽에서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나라들로 날아갔을 것이다. 그 도시는 온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어떠했을지 모를 그 밝은 모습은 구주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는 로마의 멍에 아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고 그 보응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놓인 지금의 예루살렘을 보신다. 그는 끊어졌던 탄식의 실마리를 다시 이으신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네 눈에 감추어졌다. 네게 날들이 이르리니, 네 원수들이 네 둘레에 참호를 파고 너를 에워싸 사방에서 가두며, 너를 평지처럼 만들고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 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나, 바리새적 교만과 위선, 질투와 악의가 그분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가로막았다. 예수께서는 멸망이 작정된 그 도시에 임할 끔찍한 보응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고,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림과 죽음으로 내몰리며,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의 시신을 먹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서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 빼앗는 모습을 보셨다. 사무치는 굶주림의 고통으로 자연스러운 애정은 파괴되어 있었다. 그분은 또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곧 그분의 구원을 거절함으로 드러난 그 완고함이, 침략해 오는 군대에게 굴복하는 것마저 거부하게 만들 것을 보셨다. 그분이 들려 올려지실 갈보리가 숲의 나무들만큼 뻗뻗하게 십자가들로 뒤덮인 것도 보셨다. 그분은 비참한 주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 처형으로 고통당하고, 아름다운 궁전들이 파괴되며,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 거대한 성벽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며, 도시는 밭처럼 갈아엎어지는 것을 보셨다. 그 두려운 광경을 바라보시며 구주께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예루살렘은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였고, 다정한 아버지가 방황하는 아들을 애통해 하듯, 예수께서도 그 사랑하는 도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랴? 어찌 너를 멸망에 넘겨지는 것을 보고만 있으랴? 네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도록 너를 그냥 놓아두어야 하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는, 그것과 비교하면 여러 세계가 하찮아질 만큼 크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민족 전체가 멸망하려 하고 있었다. 빠르게 서쪽으로 기우는 해가 하늘에서 사라질 때,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은 끝나고 말 것이다. 올리벳 산마루에서 행렬이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때 긍휼의 천사는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물러나, 정의와 신속히 다가오는 심판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은, 그의 자비를 멸시하고 그의 경고를 업신여겼으며 이제 그의 피로 자기 손을 물들이려 하던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셨다.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는 해의 마지막 햇살이 성전과 망대와 첨탑 위에 머무는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그 운명을 돌이키게 하지는 않겠는가? 아름답고도 거룩하지 않은 성읍, 선지자들을 돌로 찢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였으며, 회개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속박의 사슬로 묶고 있던 그 성읍—그 자비의 날은 거의 다해 가고 있었다! Desire of Ages, 576-578.

이사야서 2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을 묘사하면서, 공격자들이 “성문에서 전열을 갖추었다”고 말한다. 엘람과 기르는 무장을 갖추고 성문에 있으며, 이어 그들은 예루살렘의 뒷개를 발견한다. 이사야서에서 성문에서 원수들이 발견한 그 ‘뒷개’는 이집트의 그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반역하는 자녀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락을 세우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뒷개로 덮되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행하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바로의 힘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을 신뢰하려 하는도다! 이사야 30:1, 2.

예루살렘의 원수들조차도, 셉나가 대표하는 자들은 이집트를 의지하여 이집트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이 대표하는 자들은 ‘이집트의 그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뒷개로 덮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나는 주에 대하여 말하겠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니, 나는 그에게 의지하겠다. 시편 91:1, 2.

일요일 법령 위기 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으로 대표되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을 신뢰하고, 셉나로 대표되는 미련한 처녀들은 애굽의 그늘을 의지한다. "discovered"로 번역된 단어는 벗기고 포로로 끌고 가다라는 뜻이다. 성문 앞의 원수들은 예루살렘의 보호가 거두어졌음을 알아차리고, 셉나와 그의 무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 애쓰기를 시작한다. 그들은 "다윗 성의 파손된 곳들"을 보고, 원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많은 틈이 있음을 본다. 열 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황한 미련한

처녀들은 보호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보호도 없다.

셉나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숲의 병기고"를 의지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어 성벽을 보강하려고 그것들을 허물기 시작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은 아랫 연못에서 물을 모으고 옛 연못의 물과 연결하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물은 성령의 주요 상징이므로 그들이 필사적으로 기름을 찾고 있음을 드러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모든 노력 속에서 그들은 연못들의 창조주, 곧 그분이 오래전에 그 진리의 "연못"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들은 옛 시대에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바로 "영원한 반석"이었음을 잊었다. 그들은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기초들로 대표되는 옛 길을 걷지 않기로 선택했다.

원수는 이 마지막 날들에 굳게 설 한 백성을 준비하는 일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의 꾀변은 이 시기의 위험과 의무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도록 꾸며졌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요한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그 빛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장면들이 특별한 주의를 받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롯된 진리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들의 과거 경험을 빼앗아, 대신 거짓 과학을 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 위에 서서 보고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행하라.' 예레미야 6:16.

아무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허물려고 해서도 안 된다—우리의 사역이 시작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계시로 놓인 그 기초를. 지난 오십 년 동안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쌓아 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찾았고 이미 놓인 것보다 더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큰 기만이다. 이미 놓인 것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과거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신앙을 세우고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것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가? 곧 무너졌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제자들도 사람들의 주장과 맞서야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거짓된 이론을 듣고, 모든 것을 다 한 후 굳건히 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미 놓여 있는 터 외에는 아무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3:11.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 능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백성에게 보내어져, 그들을 세상에서 하나하나 이끌어 내어 현재의 진리의 밝고 분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였다. 거룩한 불로 입술이 만져진 하나님의 종들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진리의 진정성을 인쳐 주었다." 증언, 8권, 296, 297쪽.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날"은, 이사야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머리털을 미는 것과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는 것"을 요구하신 날이라고 지목한 성경적 "날"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성회가 될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그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날에 어떤 일이든 행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하리라. 너희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 모든 거주지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의 안식일이 될 것이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 달 아홉째 날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26-32.

셉나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으로 묘사된 그 날은 반형적 속죄일로, 1844년부터 미가엘이 일어설 때까지의 역사를 포괄한다. 그 기간 동안 재림운동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사야의 표현대로 '울고, 애통하고, 삭발하며,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는' 부르심을 받았다.

1844년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조사 심판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죽은 의인들의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어 왔다. 그 일이 끝나면 산 자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 법정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 있다. 우리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각자 심판을 받게 된다. 표상적인 봉사에서, 지상의 성소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일을 행할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며 죄를 자복하도록 요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죄가 도말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모든 사건에 대해 최종적이며 번복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려 하는 이 반표상적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그보다 덜한 것이 요구되겠는가?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아, 교회에 만연한 교만이 얼마나 큰가, 위선과 기만이 얼마나 큰가, 치장과 사치를 사랑함과 경박함과 오락이 얼마나 큰가, 으뜸이 되려는 욕망이 얼마나 큰가! 이 모든 죄가 마음을 흐리게 하여 영원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이 속죄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위치에 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참된 회개로 주를 찾아야 하며, 깊은 마음의 통회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그것들이 도말되게 해야 한다. 선택된 기별, 1권, 124, 125.

그 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밀며 굶은 베옷을 두르라고 부르셨거늘, 그런데 보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요, 소를 잡고 양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이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사야 22:12, 13.

주께서 셉나에게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고 부르셨으나 그는 먹고 마시며 계속 흥청거리를 선택했다. 주께서 그의 "귀"에 "알리셨다" — 셉나의 죄가 속죄되지 않을 것임을. "purged"로 번역된 단어는 레위기에서 "속죄"를 뜻하는 단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이 죄는 속죄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사야는 셉나(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빌라델비아적 재림교인들)의 관계를 다루기

시작한다.

셉나는 유다와 마찬가지로 '재무관'이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도비야는 봉헌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방(금고)에 살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을 때, 그는 도비야와 그의 물건들을 내쫓았다. 셉나도 내쫓길 것이다. 둘 다 일요 법령 때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토하여 내버려지는 것을 보여 준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잔혹함과 배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회중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신명기 23:3-6 참조. 이 말씀을 거스르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 방에 보관된 예물들을 치워버리고, 그 배척된 민족의 대표자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원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경멸은 있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자 느헤미야는 그 무엄한 모독을 알게 되었고, 침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 '나는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그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도비야의 모든 가재도구를 그 방 밖으로 던져 내보냈다. 그리고 내가 명하니 그들이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하였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과 소제와 유향을 가져왔다.'

성전이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헌물도 오염되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베푸는 마음이 꺾였다. 그들은 열심과 열정을 잃었고, 십일조를 바치기를 꺼리게 되었다. 여호와의 집 공간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고, 성전 봉사에 종사하던 많은 노래하는 자들과 다른 이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셉나, 유다, 도비야는 모두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의 재림교인들을 대표한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이 재무관, 곧 궁을 맡은 셉나에게 이르라. 네가 여기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여기 누구를 두었기에 여기서 네 자신을 위하여 무덤을 파며,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기를 위한 거처를 새기는 자처럼 하느냐? 보라, 주께서 강한 사로잡힘으로 너를 끌어가고, 반드시 너를 단단히 싸시리라. 정녕 너를 공처럼 세차게 돌려 큰 나라로 던지시리니,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요, 거기서 네 영화의 병거들이 네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몰아내겠고, 그가 너를 네 지위에서 끌어내리리라. 이사야 22:15-19.

북방의 왕이 예루살렘에 접근해 오고 있으며, 그 접근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앗시리아의 지휘관 타르탄이 이집트의 아스돗을 정복했을 때, 이사야 20장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그들은 무엇이 닥쳐올지 알고 있었고, 셉나는 자신을 위해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 고고학자들이 셉나의 무덤을 발견해 무덤 입구에 있던 비문을 떼어냈고, 그것은 지금 영국의 한 박물관에 있다. 놀랍게도 셉나가 해임되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셉나의 지도자 직위를 이어받았을 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공식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날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왕실 인장을 받았다. 그 인장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으며 영국의 같은 박물관에 있다. 박물관에서는 죽음의 표식인 그의 무덤이 셉나를, 생명의 표식인 인장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변하고 있다.

북방 왕에 관한 경고의 기별을 셉나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심을 당했고, 요한계시록이 라오디게아에게 주는 경고에서 '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분출성 구토'를 의미한다. 주께서는 느헤미야 때에 도비야와 그의 가재도구를 내쫓으셨고, 셉나에 대해서는 그를 공처럼 먼 나라로 거칠게 내던지셨다. 셉나는 1989년에 봉인이 풀린 예언의 기별을 거절하고 무덤, 곧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있는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을 가리키며,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빌라델비아적 재림교인들을 가리킨다.

그 날에 내가 내 종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부르리라. 내가 그에게 네 겹옷을 입히고, 네 띠로 그를 굳세게 하며,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되리라. 이사야 22:20, 21.

일요법령 때에 재림운동 안의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고, 승리하는 교회의 지도권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어지며, 그때 주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고조됨에 따라 자신의 교회를 기치로 높이 드신다. 나는 단지 엘리야김이라고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아마도 지나치게 반복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 전에 있을 엘리야 기별의 상징이다. 엘리야의 기별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처음(아버지)과 마지막(아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언적 관계는 제22장의 마지막 수수께끼들과 연결되어 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약속은 주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시리라는 것이다.

'다윗의 집'은 패역한 유대인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메시지이다. 또한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끝맺으시는 곳이기도 하다. 다윗의 집에는 열쇠가 있었는데, 적어도 1844년 10월 22일에 사용된 열쇠다. 성경에서 이 열쇠를 언급하는 유일한 곳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이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22.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네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 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7-12.

엘리아김은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를 연 밀러주의 운동 당시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을 상징한다. 그 경륜의 문을 여신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의 어깨에 열쇠를 두시고, "그가 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글의 처음에 내가 지적했던 지점에 이르렀다.

이사야서에는 "burden"이라는 단어가 열여덟 번 나오는데, 그중 일곱 번은 어깨에 메는 짐을 뜻하고 열한 번은 파멸의 예언을 뜻한다. 그 열여덟 번 중 한 번은 파멸의 예언을 뜻하는 그 단어가 동시에 어깨에 메는 짐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였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놓는 멸망의 기별에 관한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한 예언의 기별은 밀러 신부에 의해 전해졌고, 그것은 1844년 10월 22일 성소의 문이 닫히고 지성소가 열렸을 때 끝난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윌리엄 밀러의 어깨에 지워져 그가 온 세상에 전하라고 위임받은 '짐'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으며,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래한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 멸망의 예언이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 하고 또 이르되, "그 날에," "견고한 곳에 박힌 못이 뽑혀 꺾여 떨어지리라; 그 위에 있던 짐도 끊어지리라."

여기서 '짐'으로 번역된 단어는 재앙의 예언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이 재앙의 예언이라는 뜻의 단어는 이사야가 어깨에 메고 가는 물건을 나타낼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다. 재앙의 예언이라는 의미로 볼 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의 어깨 위에 다윗의 열쇠가 놓일 것이며, 그의 어깨에 있는 짐이 곧 재앙의 예언이라는 뜻이 된다. 참으로 심오한 언어유희다!

화이트 자매는 성경에 달린 열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보배로운 상자를 여는 열쇠가 있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나는 비쳐 오는 모든 빛줄기에 감사한다. 미래에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신비롭게 보이는 경험들이 설명될 것이다. 몇몇 경험은 이 죽을 몸이 불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결코 완전히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7, 261.

밀러가 자신의 꿈에 대해 한 서두 발언은 이렇다.

"나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이 약 10인치, 가로세로 6인치 되는, 흑단과 진주로 정교하게 상감된 정교한 함을 내게 보내시는 것을 보았다. 그 함에는 열쇠가 하나 달려 있었다. 나는 곧 그 열쇠를 집어 함을 열었는데, 놀랍고도 경이롭게도, 그 안에는 온갖 종류와 크기의 보석들, 다이아몬드, 진귀한 보석들, 그리고 크기와 가치가 제각각인 금화와 은화가 함 안의 각각의 자리에 아름답게 배치되어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배치된 그것들은 오직 태양에만 견줄 수 있는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초기 저술, 81.

제임스 화이트는 그 꿈에 대한 각주에서 그 열쇠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부착된 열쇠'는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의 방식—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성경 자체를 해석자로 삼는 방식—이었다. 이 열쇠로 밀러 형제는 '상자', 곧 세상에 드러낼

재림의 위대한 진리를 열었다. 제임스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는 이 꿈에 대해 논평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문을 썼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밀러가 이 꿈을 꾸고 1847년에 그것을 출판했는데, 이는 대실망 이후 최소한 2년이 지난 때로, 이전에 하나였던 밀러파 재림교도들이 흩어진 뒤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밀러는 그 운동과 분리되어 있었고, "사방으로 흩어진" "작은 무리"는 여전히 그 실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밀러의 꿈은 그 상황을 말해 주었고, 제임스 화이트는 이에 대해 논평했으며, 엘런 화이트는 그것을 전적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언급했다. 제임스 화이트는 그 꿈에 대한 서문을 쓰고, 꿈을 수록한 다음, 몇 가지 각주를 덧붙였다. 그의 서문과 꿈, 그리고 각주는 이 정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이 글의 끝부분에 실릴 것이다.

이사야서 22장은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에 대한 예증이다. 두 역사 모두에서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고 다시 일요일 법령 때에 분리가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이다. 두 경우, 곧 시작과 끝에서의 그 분리는 열 처녀 비유의 성취이다. 화이트 자매는 미련한 처녀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썩나는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을 대표한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빌라델비아적 재림교인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힐기야는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였으므로 재림주의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윌리엄 밀러는 존경을 담아 "아버지 밀러"라고 불렀다. 밀러의 어깨에는 "다윗의 열쇠"가 놓였는데, 이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의 방법, 곧 "구절 위에 구절"을 상징한다.

상자가 성경이었으므로, 그는 첫째 천사의 진리를 열기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예언 해석의 규칙을 나타내는 "다윗의 열쇠"를 사용했다. 그 규칙들(다윗의 열쇠)과 다윗의 열쇠로 이해된 그의 파멸의 예언(짐)은 성소에서 "확실한 곳에 박힌 못"에 걸려 있었다. 그 "못"은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였다. "못"이라는 단어는 핀, 못 또는 말뚝을 뜻하며, 이정표를 나타낸다. 그 못에 걸린 "짐", 곧 파멸의 예언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그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에 종결되었다. 그때 그 파멸의 예언이 성취되어 제거되고 잘려 떨어졌다. 그것이 제거된 것은 파멸의 예언적 기별이 이미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후 그 못은 지성소로 옮겨져 그 위에 또 다른 파멸의 짐이 걸려야 했다.

"다윗의 열쇠"로 상징된 예언적 규칙들에 따라 이해된 밀러의 파멸의 예언은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을 지탱할 못을 성소에 박아 둘 것이다. 해당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를 뜻한다. 집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집의 기초다. 밀러의 기초 작업은 "자손과 후예"로 상징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든 추가적인 빛의 무게를 지탱한다. 또한 성전의 온갖 그릇들의 무게도 지탱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둘 성전을 위한 기초가 놓였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타낸다. 엘리야김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예루살렘의 아버지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윌리엄 밀러를 대표한다. 그는 힐기야의 아들인데, '힐기야'라는 이름은 두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둘째는 '하나님'을 뜻하고 첫째는 말의 유창함 같은 '매끄러움'을 의미한다. 힐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음성을 나타내며, 그의 아들인 엘리야김은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재림주의의 끝에는 반드시 파멸의 예언이 있어야 하며,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이다. 끝에는 밀러의 열쇠로 예표되었던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열쇠"는 역사 반복에 근거하며, 특히 최초 언급의 법칙에 근거하는데, 이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대표되는 원칙을 포함하거나 곧 그것이다. 밀러의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밀러는 여호와의 말씀인 힐기야가 되고, 밀러의 아들은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야김이 된다. 아버지 밀러는 성전을 세웠고, 밀러의 아들은 라오디게아와 빌라델비아가 분리되는 때와 빌라델비아인들이 기치로 들려 올려지는 때를 식별한다. 박혀 있는 못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밀러의 역사에서처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박힌다. 그 못과 그 위에 매달린 짐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끝에서 그랬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의 끝에서도 잘려 나갈 것이다.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닫힐 때, 파멸의 예언은 과거형이 되어 제거되고, 잘려 나가고, 떨어질 것이다.

1844년에 때가 지나간 후의 분리 또는 흩어짐은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반복될 것이다. 이사야 22장은 일요일 법령 위기 때 일어날,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과 빌라델비아 재림교인들 사이의 분리를 일으키는 상황을 보여주는 예이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덤지도 않구나. 차든지 덤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덤지도 않으므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유 재물이 늘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지만,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불로 단련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요하게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리니, 나도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7-22.

꿈에 대한 서문 이후 제임스 화이트는 각주를 달아 그 꿈을 수록한다. 우리는 제임스 화이트의 밀러의 꿈에 대한 적용에 대해, 제임스 화이트와 다소 다른 그의 꿈의 해석을 우리가 종종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제임스 화이트의 기본적인 접근이 우리가 발표해 온 것과 다른 점은, 그가 '보석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맥락에 두는 반면, 우리는 그 보석들을 예언적 진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순은 없고, 대실망 이후 보석들이 흩어진 것은 일요일 법령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예표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앞으로의 연구 주제다.

## 제임스 화이트의 '윌리엄 밀러의 꿈' 서문

Advent Herald에는 지금으로부터 2년이 조금 넘게 전에 다음과 같은 꿈이 실렸다. 그때 나는 그것이 우리의 과거 재림 경험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의 유익을 위해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리는 징조들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두셨다. 요엘 2:28-31; 사도행전 2:17-20 참조. 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다. 첫째, '많은 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전도서 5:3 참조. 둘째, 사탄의 더러운 영과 속임수 아래 있는 자들은 그의 영향으로 꿈을 꿀 수 있다. 신명기 8:1-5; 예레미야 23:25-28; 27:9; 29:8; 스가랴 10:2; 유다서 8절 참조. 셋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는 꿈으로 그의 백성을 크든 작든 가르치신다.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실 때 그것을 알 것이며, 그런 이들은 거짓 꿈들에 속거나 미혹되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르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리라. 민수기 12:5.

야곱이 이르되,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31:2.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셨다.' 창세기 31:24. 창세기 37:5-9에 나오는 요셉의 꿈들을 읽고, 이어서 그 꿈들이 이집트에서 성취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 보라.

기브온에서 밤에 꿈으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열왕기상 3:5.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은 꿈으로 주어졌고, 7장의 네 짐승 등도 그러했다. 헤롯이 아기 구주를 멸하려 할 때 요셉은 꿈에서 이집트로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마태복음 2:13.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꿈과 환상을 통한 예언의 은사는 여기서 성령의 열매이며, 말세에는 표적이 될 만큼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복음 교회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에베소서 4:11, 12.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예언자들 등. 고린도전서 7:28.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20. 또한 사도행전 13:1; 21:9; 로마서 12:6; 고린도전서 14:1, 24, 39 참조. 선지자들이나 예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예언과 선지자 직분이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의 사역이 끝나기 전에 먼저 그쳐야 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자는 이렇게 말한다. "거짓 환상과 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것은 무엇이든 신뢰할 수 없다." 사탄에게도 가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두어 왔고, 틀림없이 지금 이 그의 기만과 승리의 마지막 때에도 그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가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타당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일이 결코 없다고 부인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짜는 언제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수단이다. 이 수단을 통해 그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복음 교회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두셨으며, 꿈과 환상을 '마지막 때'의 다른 징조들과 함께 두셨다. 아멘.

"앞서의 언급에서 나의 목적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의를 해소하고, 이어질 내용을 위해 독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제임스 화이트, '밀러 형제의 꿈', 1-3.

##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꿈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이 약 10인치, 가로와 세로가 각각 6인치인, 흑단과 진주를 기묘하게 상감하여 만든 정교한 상자를 내게 보내 주시는 꿈을 꾸었다. 그 상자에는 열쇠가 하나 달려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 열쇠를 집어 상자를 열었는데, 놀랍고도 경이롭게도, 그 안에는 온갖 종류와 크기의 보석들, 다이아몬드, 진귀한 보석들, 그리고 크기와 가치가 제각각인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고, 상자 안의 각기 제자리에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렇게 배열된 그것들은 오직 태양에만 비길 수 있는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내용물의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에 내 마음은 한껏 기뻐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와서 이 생에서 인간이 본 것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찬란한 광경을 보라고 알렸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가 적었지만 점점 늘어나 군중이 되었다. 처음 보석함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며 기쁨에 환호했다. 그러나 구경꾼이 많아지자 모두가 보석을 건드리기 시작해, 보석함에서 꺼내 탁자 위에 흩어 놓았다. 나는 주인이 다시 내게서 보석함과 보석을 돌려받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이 흩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예전처럼 보석함 안의 제자리에 다시 넣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막중하여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으리라 여겨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보석함에서 꺼내지도 말아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간청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흩어 놓았다. 이제는 방 안 곳곳, 바닥과 방 안의 모든 가구 위에까지 그것들을 흩어 놓는 듯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진짜 보석과 주화 사이에 무수한 가짜 보석과 위조 주화를 흩뿌려 놓았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행실과 배은망덕함에 크게 격분하여 이를 두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내가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그들은 진짜 것들 사이에 가짜 보석과 가짜 주화를 더 많이 흩뿌렸다.

그러자 나는 육체의 혼이 괴로워져 물리력을 써 그들을 방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한 명을 밀어내는 사이에 세 명이 더 들어와 먼지와 깎아낸 부스러기와 모래와 온갖 쓰레기를 들여와, 참된 보석들, 다이아몬드, 동전 하나하나를 전부 덮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들은 또 내 귀찮을 산산이 부수어 그 조각들을 쓰레기 더미 속에 흩어놓았다. 아무도 내 슬픔이나 분노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완전히 낙담하고 낙심하여 앉아 울었다.

이처럼 큰 상실과 책임으로 인해 울며 애통해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도움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곧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모두 방에서 나갔다. 그는 손에 빗자루를 든 채 창문을

열고, 방 안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참으라고 소리쳤다. 쓰레기더미 사이에 귀중한 보석이 몇 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했다. 그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먼지와 잡동사니, 가짜 보석과 위조 동전을 쓸어내자, 그것들은 모두 구름처럼 치솟아 창밖으로 나갔고, 바람이 그것들을 실어 가 버렸다. 소란 속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 잡동사니는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귀중한 보석들, 다이아몬드, 금화와 은화가 온 방 안에 넘치도록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런 다음 탁자 위에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보석함을 하나 올려놓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동전들을 한 움큼씩 그러모아 보석함에 던져 넣었으며, 어떤 다이아몬드는 핀 끝보다도 크지 않았지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와서 보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광경에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것들은 전보다 열 배나 더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흩어 먼지 속에 짓밟았던 그 악한 자들의 발에 의해 모래에 문질러져 닳아버린 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상자 안에 아름다운 질서로,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것들을 던져 넣은 사람의 눈에 띄는 수고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크나큰 기쁨에 소리쳐 외쳤고, 그 외침에 나는 깨어났다." 초기 저술, 81-83.

## 제임스 화이트의 각주

'상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상징하며, 그 진리들은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밀러 형제에게 주어졌다.

'붙어 있는 열쇠'는 그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 곧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성경 자체가 해석자가 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열쇠로 밀러 형제는 '궤', 즉 재림의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열어 보였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가 적었으나 점차 군중으로 늘어났다." 재림의 교리가 밀러 형제와 극소수의 다른 이들에 의해 처음 설교되었을 때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그것으로 깨어난 사람도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1840년부터 1844년까지는 그것이 설교되는 곳마다 온 공동체가 각성되었다.

'온갖 종류와 크기'의 '보석, 다이아몬드 등'이 '보석함 안에서 각각의 자리에 그렇게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라기 3:17,] 곧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신분과 삶의 형편에서 온 자들로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거룩한 대의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서 있는 것으로 보였던 이들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질서 가운데 움직이며, 각자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 그들은 세상에 '빛과 영광'을 비추었으니, 그것은 사도들의 시대 교회에만 비길 수 있을 정도였다. 그 기별은 [요한계시록 14:6, 7] 마치 바람의 날개를 타고 가는 듯 퍼져 나갔고, '오라,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노라,' [누가복음

14:17.] 하는 초청도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널리 전파되었다.

날아가는 천사[요한계시록 14:6, 7.]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오심과 회복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대적하고 비웃으며, 조금 전까지도 그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던 진리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보석들을 뒤흔들고 흩어 버렸다. 이로써 우리는 1844년 가을, 곧 흩어짐의 때가 시작된 때에 이르게 된다. 주목하라: 한때 '기쁨으로 외쳤던' 바로 그들이 보석들을 뒤흔들고 흩어 버렸다. 그리고 1844년 이래로, 한때 진리를 전파하고 그것을 기뻐하였으나 그 후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과거 재림 경험 속 예언의 성취를 부인해 온 자들만큼, 무리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흩어 놓고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자들은 없었다.

밀러 형제의 증언은, 1844년 일곱째 달의 자정의 외침 이후 여러 달 동안, 문이 닫혔다는 것과, 재림 운동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과, 우리가 때를 전한 것이 옳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애드벤처 헤럴드를 통해 형제들에게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곧 때를 전한 일에 관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그는 보석들을 위해 호소하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느꼈고, 그것이 '막중할 것'이라고 느꼈다.

1844년에 문이 닫힌 이후, 참된 것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가짜 보석과 위조 주화'는 '거짓 회심자들', 곧 '낮선 자녀들'[호세아 5:7.]을 분명히 가리킨다.

흩어진 '보석들', '다이아몬드', 그리고 '동전들'이 모아졌던 '이전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아름다운' 두 번째 '보석함'은, 흩어진 양떼가 모이게 될 살아 있는 현재의 진리의 넓은 분야를 나타내는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4,000명 전원이 그 안에 모임 것이다. 귀한 다이아몬드 하나도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들은 '바늘끝만큼도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석들을 모으시는 이 날에 그것들이 간과되거나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라기 3:16-18.]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에서 롯을 나오게 하셨듯이 그들을 재촉하여 나오게 하실 수 있다. '주께서 땅 위에서 단시간에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는 의로 그것을 단축하실 것이다.' 로마서 9:28 참조.

'흙과 깎아낸 부스러기, 모래와 온갖 쓰레기'는 1844년 가을 이래 재림 신자들 사이에 유입된 다양하고도 수많은 오류들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1. '목자들' 중 일부가 주제넘게 취한 입장은, 한밤중 외침이 선포된 직후, 제7월 운동에 함께했던 성령의 장엄하고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최면적 영향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조지 스토프는 이러한 입장을 가장 먼저 취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의 글은 당시 뉴욕시에서 발행되던 Midnight Cry 지 1844년 후반부에 실린 것을 보라. J. V. 하임스는 1845년 봄 올버니 회의에서 제7월 운동이 7피트 깊이의 최면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발언을 직접 들은 이에게서 내가 전해 들은 것이다. 제7월 외침에 적극 참여했던 다른 이들 또한 그 후 그 운동을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해 왔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로 돌리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계시던 때에도 신성모독이었고, 지금도 신성모독이다.

2. 정한 때에 대한 많은 시도. 1844년에 2300일이 끝난 이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종결 시점으로 여러 때를 정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정표들'을 없애 버렸고, 온 재림 운동 위에 어둠과 의심을 드리웠다.

3. 온갖 허탄한 공상과 과장을 동반한 심령주의. 죽음의 끔찍한 일을 이루어 온 이 마귀의 간계는 '나무 깎은 부스러기'와 '온갖 쓰레기'로 매우 적절하게 표현된다. 심령주의의 독을 마신 많은 이들은 우리의 과거 재림 경험의 진리를 인정했으며,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843년과 1844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재림 운동을 주관하셨다는 믿음에서 심령주의가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라고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들여오는 자들'을 말하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4. S. S. 스노우, 자신을 '선지자 엘리야'라고 자처함 이 사람은 그 기이하고 난폭한 행로 속에서 이 사망의 일에도 자기 몫을 했으며, 그의 행적은 많은 정직한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참된 입지를 실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 오류 목록에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덧붙일 수 있는데, 예컨대 요한계시록 20:4, 7의 '천 년'을 과거에 두는 것, 요한계시록 7:4; 14:1의 14만 4천,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자들, 행위 불요 교리, 유아 멸망 교리 등등.

이러한 오류들이 그렇게까지 부지런히 퍼뜨려지고 기다리던 양 떼에게 강요되어, 밀러 형제가 그 꿈을 꾸었을 때에는 참된 보석들이 '눈에서 가려졌고', 예언자의 말씀이 들어맞았다 — '정의는 뒤로 물러가고 공의는 멀리 서 있으며' 등등. 이사야 59장 14절 참조. 그때에는 현재 진리의 대의를 옹호하는 재림 신문이 이 땅에 하나도 없었다. "The Day-Dawn"은 작은 무리의 참된 입장을 옹호하던 마지막 신문이었으나, 그것도 주께서 밀러 형제에게 이 꿈을 주시기 몇 달 전에 폐간되었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지치고 한숨짓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최종 구원의 때로, 당시로부터 30년 후인 1877년을 가리켰다. 아아! 아아! 이처럼 슬픈 형편을 보며 밀러 형제가 꿈에서 '앉아서 울었다' 한들 놀랄 일이 아니었다.

밀러 형제는 1849년 12월 22일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는 그의 꿈 속의 다음과 같은 말, "분주한 와중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놀라운 성취는 너무나도 분명하여 그것을 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자'는, 열 처녀의 비유가 지시한 바와 같이, 밀러 형제가 세상에 선포한 재림 진리를 나타낸다. [마태복음 25:1-11.] 첫째, 1843년의 때; 둘째, 지체의 때; 셋째, 1844년 일곱째 달의 한밤중 외침; 넷째, 닫힌 문. 1843년 이래 재림 간행물들을 읽어 온 사람이라면, 밀러 형제가 재림 역사에서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점을 옹호해 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조화로운 진리의 체계, 곧 '상자'는, 자기들의 체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밀러 형제와 함께 세상에 두려움 없이 설교했던 바로 그 진리들을 부인한 자들에 의해, 산산이 찢겨져 쓰레기 더미 속에 흩어졌다.

"그때 교회는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 지워졌으므로, 정결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어떤 것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전의 영광보다 열 배나 더 큰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제임스 화이트 오스위고, 1850년 5월.

